

도시기억아카이브

온양온천 목욕탕 아카이브

도시기억아카이브

도시기억아카이브

사진
김선홍
김인숙
박승규
안성준
정진

도시기억아카이브

**온양온천
목욕탕
아카이브**

온양온천

溫陽溫泉, Onyangoncheon

삼국시대부터 있었다는 국내 기록상 가장 오래된 온천, 1300년전부터 이어온 온양온천이 품고 있는 기억의 장면을 2024년의 모습으로 기록에 남기려 합니다. 1970년대부터 신혼여행, 수학여행 등의 국내 여행 방문1순위로 꼽혀 국민 온천으로 사랑받았던 그 화려함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 까요? 아산시 문화관광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는 온양온천 중 사진기록이 가능한 12곳의 모습과 온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추억하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온양온천 2024

도시지역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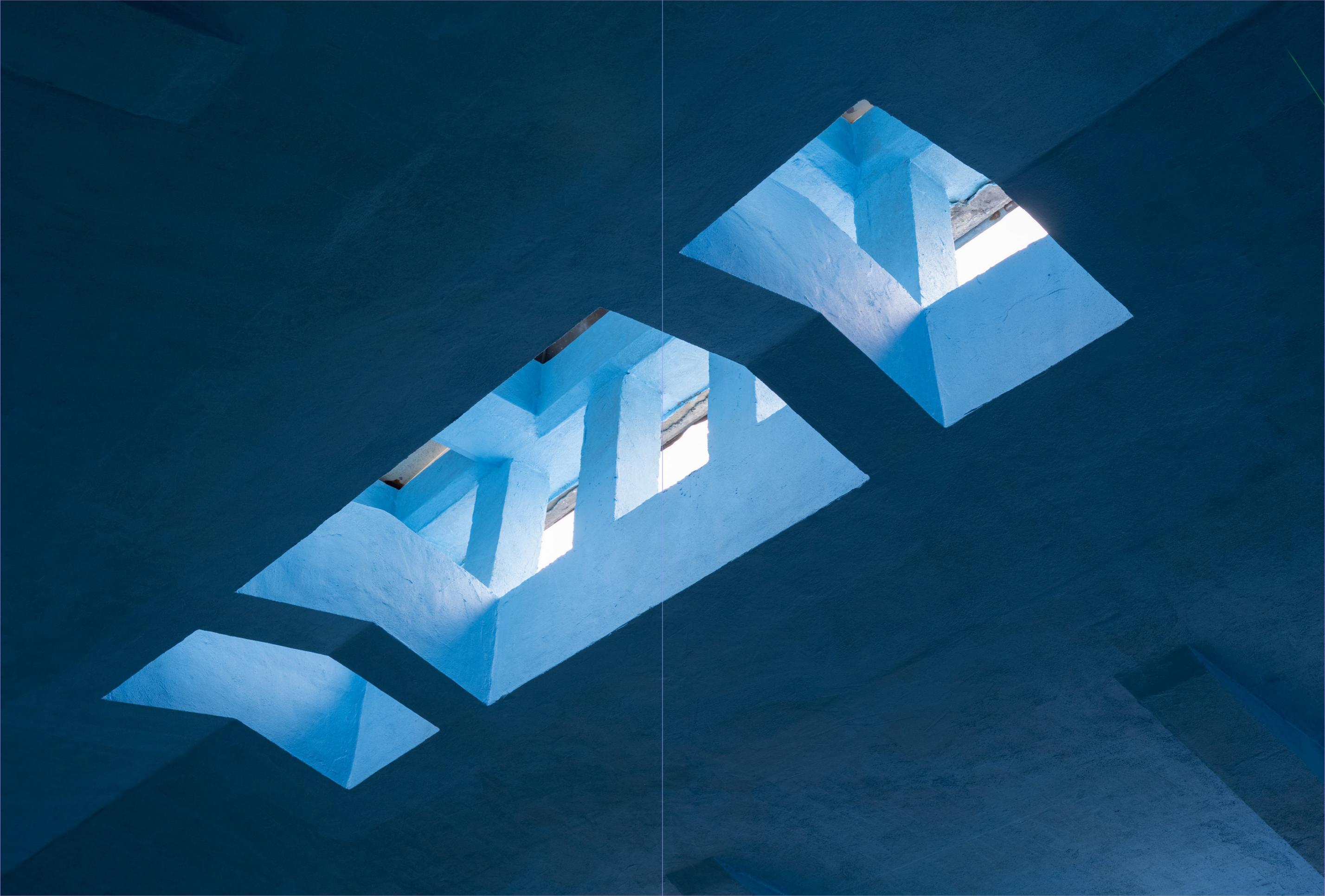
MOMENT

뜨거운 물이 넘쳐흐르는 땅 온양(溫陽), 아산시에 속해 있는 온양동은 1986년 아산군 온양읍을 온양시로 승격하면서 한 때 아산과 분리되어 온양시로 이름을 알리다가 1995년 아산군과 통합하여 아산시로 개편되면서 온양동(1~6동)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중심에 자리한 온양은 온천수의 뜨거운 물을 품은 만큼 아산시민의 문화 예술혼을 데우고 있는 도시의 정체성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기억한다는 것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 그 도시의 모습을 함께했던 우리 삶의 기억이 추억으로 깃들어 있기 때문에 매 순간이 살아있는 장면으로 소중한 게 여겨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재단법인 아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지역문화예술 활동사업으로 대한민국 1호 온천도시로 선정된 가장 오래된 온천인 온양온천을 사진기록으로 남겨 온천에 대한 이해를 널리 알리고 온양온천을 즐겨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미래 세대가 소통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열어주는 사진기록전을 준비했습니다.

온양온천 목욕탕이라는 주제에 맞는 사진을 담기 위해 입욕객들이 모두 퇴장하기를 기다리며 늦은 밤과 새벽시간에 사진을 찍어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역 주민이 들려주신 과거의 기억 속 장면을 하나라도 더 담으려고 목욕탕 굴뚝, 건물 옥상, 담벼락, 벽지 아래 감춰진 기록을 찾아 추억을 발굴하기도 했죠. 2024년의 온양온천 목욕탕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멘트는 도시지역 아카이브를 통해 사라져가는 도시의 기억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추억을 이야기로 풀어내 지금의 세대와 소통할 수 있도록 기억을 기록하고 전하는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가 갖고 있는 숲, 강, 자연, 사람, 건물 등 우리 주변 일상의 기억으로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미래가 소통할 수 있도록 사진으로 기억의 창을 열겠습니다.



역사 속의 온양온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 따뜻한 물이 넘쳐나는 곳, 삼국시대부터 온천으로 알려진 곳, 온양온천(溫陽溫泉)의 한자 이름인 따뜻한 온(溫), 별 양(陽)자에서 알 수 있듯이 온천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온양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온천으로 유명해지면서 온양이라는 지명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온양온천은 기록에 따르면 1300년전부터 이어져온 국내1호 온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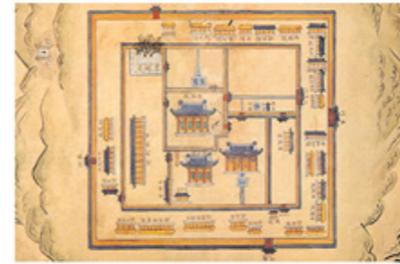
마한시대에는 염로국이었던 곳이 온조왕 때 백제로 합병되었고 36년에 탕정성이 축조되어 탕정군(湯井郡)이 설치됩니다. 탕정이라는 이름 또한 따뜻한 물이 흐르는 온천지역을 일컫는 말로 백제 초기때에도 온천지역으로 그 이름을 떨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온수군(溫水郡)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고려 현종 때 천안으로 잠시 편입시켰으나 다시 명종 때 온수현을 독립시키게 됩니다. 세종 때에 이르러 지금의 이름인 온양(溫陽)으로 이름을 바꾸고 온양군으로 승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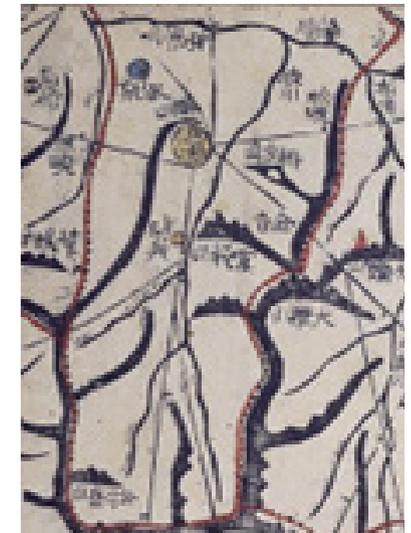
세종대왕은 풍질과 안질, 피부병에 시달렸는데 온천수가 도움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35세 되는 해(1433년, 세종대왕 15년)에 온양온천을 방문하게 됩니다. 왕의 온천 방문을 위해 일년동안 온양행궁(온궁 溫宮)을 건립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방문한 후 1441년에 건강이 크게 좋아지자 온양온천이 있던 '온수현'을 '온양군'으로 승격시키게 됩니다. 세종대왕의 온양온천 사랑은 유명한데 온천을 방문하게 되면 보통 한 달 정도 머물렀으며, 왕이 행차할 때마다 고생하게 되는 백성을 위해 음식과 상금을 내렸고 세금을 줄여주거나 거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제 때에는 온양온천주식회사가 독점으로 온천장을 경영하였고 1927년 이후 경남철도주식회사가 온천장을 매입해 신정관으로 오픈하였고 일본인 소유의 탕정관 등 2개소가 운영되었는데 1945년 일본인이 강탈해간 신정관을 회수해 교통부에서 관리하다가 6.25사변을 만나 포화로 완전히 소실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불에 탄 신정관 자리에 온양철도호텔을 건립했으며 이는 지금의 온양관광호텔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1963년 신천개발이 활발해지면서 38개의 온천공이 발굴되었고 온양온천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계기가 됩니다.

2023년 기준 온양온천은 평균 49.4℃의 온천수, 237만명이 온천을 이용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024 전국 온천 현황 보고서, 행정안전부) 온양온천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방문자 중 보고되지 않은 이용객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이용객이 온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양행궁, 온양관광호텔 전시관
<출처: 아산시 문화관광사이트>



대동여지도 온양 <출처: 위키백과>

온양온천의 매력

온양온천은 물이 좋고 따뜻하기로 유명합니다. 온천수의 수온이 58도 내외로 고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마니타온이라는 온천수의 주요 성분을 함유한 약알카리성 온천으로 피부를 좋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신경통, 부인병, 위장병 등에 좋다고 하여 찾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왕이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와 온천을 즐겼던 곳으로 이름난 곳이 온양온천 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태조가 처음 온양온천을 찾았고 이후 세종(1433년)이 안질 치료를 위해 행차하였는데 그 온행을 위해 온양행궁(온궁)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 세조, 현종, 숙종, 명종, 영조, 정조 등 여러 임금이 병을 치료하거나 휴양을 즐기기 위해 머물렀던 곳이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임금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온양온천은 우리나라 온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는데 일제 침략기 때 일본 상인들이 온천의 권리를 빼앗아 가고 온양행궁을 폐쇄하는 등의 고통을 겪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1922년 장항선 철도를 만든 경남철도주식회사가 서양식 건물인 대규모 온천장 ‘신정관’ 을 오픈하면서 다시 온천장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신혼여행 1번지로 국민온천의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따뜻한 사람들, 온정이 넘치는 온양(溫陽)

온양온천은 온양1동을 중심으로 온천 관광호텔과 대중탕이 모여 있는데 온양온천 제1호 원탕인 신정관 온천탕, 국내 최초로 온천공 개발에 성공해 지은 ‘신천탕’ , 역사의 흥망승쇠를 함께 간직한 온양관광호텔, 아산시 온양온천역에 도착하면 바로 보이는 시민을 위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온양온천역 무료 족욕 체험장 ‘소원분수-건강의샘’ 노천탕 그 외에도 여러 온천탕과 대중탕이 온천수를 제공하고 있으니 온양동에서는 어디를 방문하든 ‘목욕 물 좋은 곳’ 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온양온천은 온천공을 직접 개발해서 이용하다 보니 타 지역에 비해 온천수의 온도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넘쳐나니까, 풍족했지요. 사람들이 인심도 좋았어요.” 평생을 온양에서 살아 온 주민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언 땅에서 뜨거운 물이 넘쳐났으니 손발을 녹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스해 지고 서로를 위하는 인심이 여유로웠던 게 아닐까요?

온양온천에서 목욕을 하고나서 꼭 온양온천시장을 꼭 방문하라고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맛난 먹거리와 다양한 전통문화로 온양의 옛 모습을 담고 있는 온양온천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 - 나물 파는 어르신들의 미소,전통한과에 튀김을 맛나게 먹는 아이들의 웃음, 온 가족이 함께 나온 나들이를 즐기며 행복해하는 얼굴에서 온양의 따스함을 만나게 됩니다.

온양온천 목욕탕 아카이브

1

온양관광호텔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59

2

온양제일호텔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62

3

온양온천랜드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28번길 46

4

청주온천탕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8번길 6

5

신정관온천탕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385

6

신천옥사우나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역길 64

7

신천탕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69

8

온양대온천탕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510

9

온양온천탕

충청남도 아산시 온궁로 29-1

10

용문대중탕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81

11

정수온천탕

충청남도 아산시 온궁로 25-4

12

현대탕

충남 아산시 충무로 63

13

노천탕

온양온천역 광장 족욕체험장



온양관광호텔



조선의 세종대왕, 세조, 현종, 영조대왕까지 휴양과 치유를 위해 머물렀던 곳.

1300년의 온천 역사를 간직하고 흐르는 뜨거운 온천 수

옥빛 온천수가 뿜어내는 대온천당의 열기 속에 몸을 녹여봅니다.

노천당에서는 바람결에 전해지는 대나무와 술 향이

역사의 기억속으로 잠시 안내하는듯 나른해 집니다.

피로는 사라지고 노곤하게 물려오는 졸음이

마음의 행복감을 전해줍니다.









안내말씀
미끄럼주의
바닥의 물기로 인하여 노천탕 주변이 미끄러울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온양관광호텔

어린이 유의사항
물놀이를 하는것은 다칠 위험이 있으니 금지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물놀이기구 탕내 반입금지
예) 튜브, 물총, 장난감, 놀이기구

욕 지수정
불가

건식사우나
dry sauna
주요사항

Green and black striped m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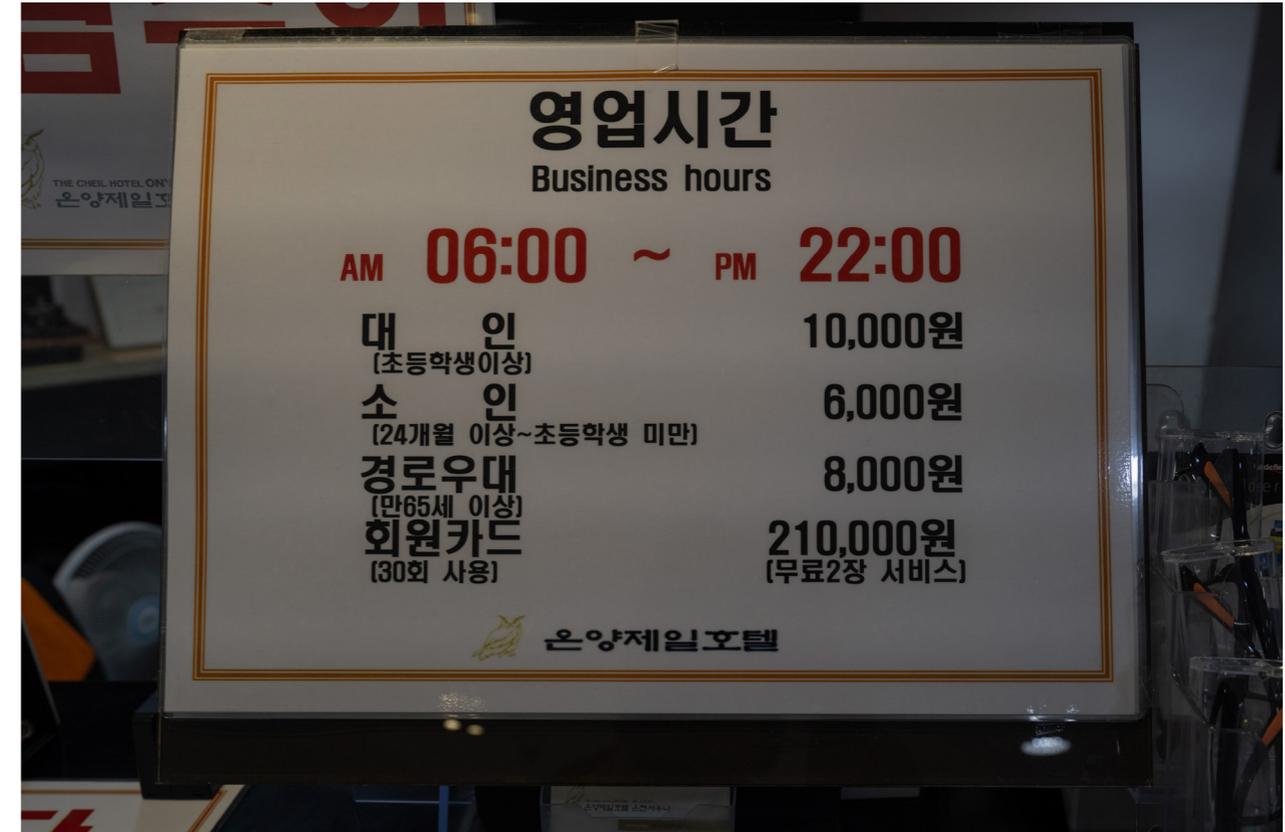


은양제일호텔



은양제일호텔의 지하에 위치한 제일온천사우나는
각 객실에서 온천 스파를 즐길 수 있는 곳이며,
은양지역 내에서 가장 큰 사우나 시설이라는 호텔측의 자랑에
걸맞게 넓고 깨끗한 모습입니다.







THE CHEL HOTEL ONYANG
온양제일호텔

웨딩의 명소
웨딩
각종연회
세미나
홀잔치
강수연
T.011-547-1500

온양제일호텔 THE CHEL HOTEL ONYANG
웨딩 · 각종연회 · 세미나 · 홀잔치 · 강수연
예약문의 011-547-1500

Scarf PASTORI
미프가죽
지알은혜 카바라
제일호텔 웨딩홀

온양제일호텔
미프가죽
지알은혜 카바라
제일호텔 웨딩홀

溫陽觀光호텔

온양온천랜드

아이들과 함께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온천수로 만들어진 작은 워터파크가 바로 온양온천랜드 거든요.

사계절 내내 방문해도 좋은 곳인데 그 만큼 사람도 많은 게 옥에 티죠.











청주온천탕



청주온천호텔에 위치한 청주대중온천(청주탕, 청주온천탕),
역사가 오래된 만큼 그 이름도 여러 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3대째 이어오는 역사 속에 과거의 모습이 담긴 장면을 발견하는 순간!
누군가는 시설이 낙후되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고
또 누군가의 추억의 장면을 발견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청주온천

Cheongju Hot Spring

신정관온천탕



우리나라 1호, 온양온천 1호 원탕

도시의 변화 속에 신정관 역시 올해 목욕탕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탕으로 쏟아지는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뚫린 천장을 살린 덕분에

옛 모습의 기억이 목욕탕 속에 담겼구나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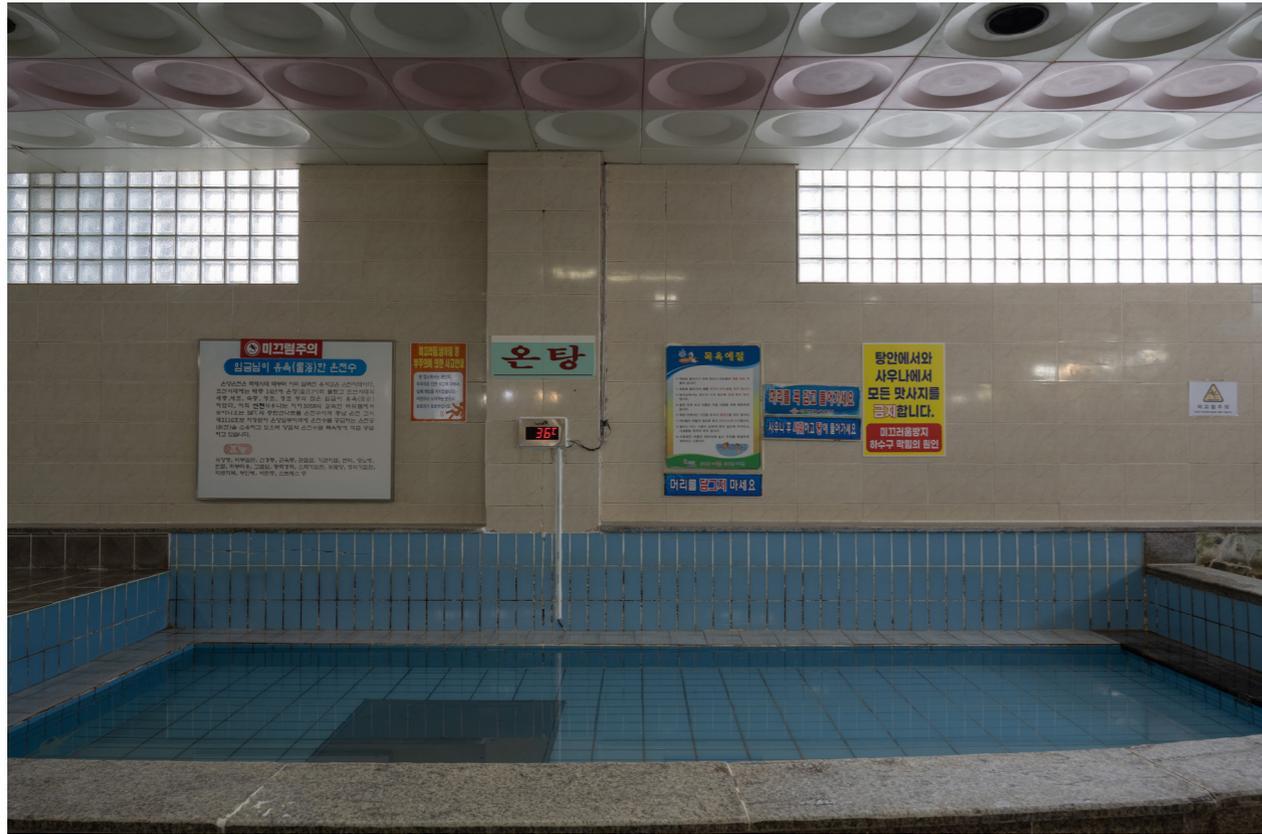
신천옥사우나

신천탕을 모태로 지어진 신천옥대중탕, 신천옥사우나입니다.
대중탕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동네 목욕탕의 정다운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운양  운천
신천포사우나

1←3

가전

개로아름 농협
신천사우나
아산맑은쌀
최우수브랜드

신천탕

1958년 한국인 최초로 온천공 개발에 성공,

1960년 대중목욕탕인 신천탕 준공 후

2005년 지금의 모습으로 새롭게 리모델링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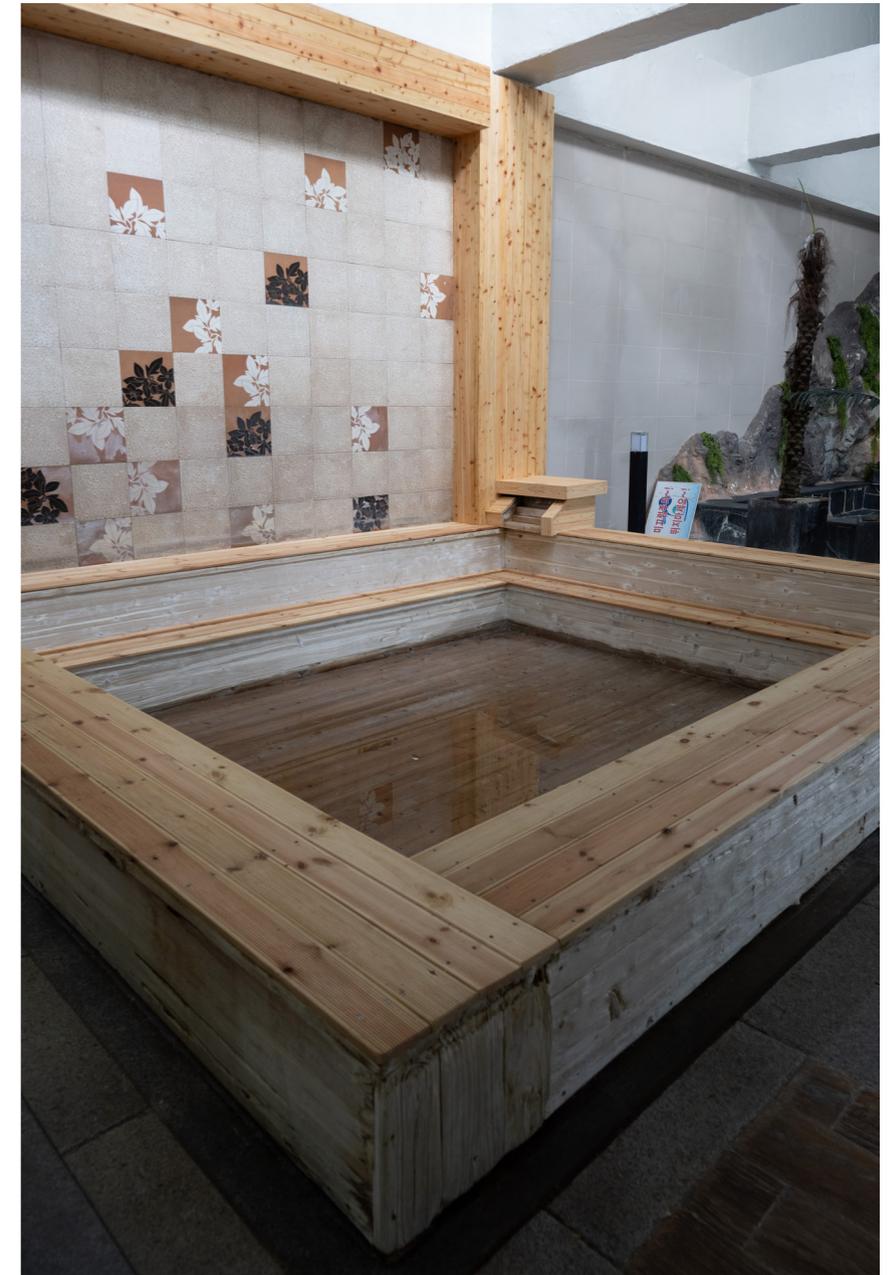
넓고 깨끗한 지금의 시설아래 과거의 모습은

배관을 뚫고 올라오는 원탕의 온천수 뿐인가 싶었는데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년을 신천탕 물이 좋아 방문한다는 주민의 이야기에 과거와 지금의 소통을 이어봅니다.









온양대온천탕

온양온천장, 온양대온천탕, 대중탕 목욕탕

주변에 밀집된 상가 건물들 사이에 과거의 모습을 담고 있는 굴뚝과 온천수샘물 이라는 낡은 수도꼭지가 원탕 온천수입을 짐작케 합니다.

낡은 걸모습과 달리 목욕탕의 면모를 갖춘 실내여서 안심했다고 할까요.

물 좋은 대중탕 목욕탕입니다.









온천수샘물

외부차량
주차금지
적발시 "견인조치"



온양온천탕

온양온천시장 온궁로와 연결되어 있는 온양온천탕(온양탕).
온양온천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온천 대중목욕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날에라도 걸리면 사람들로 붐비는 온양탕을
만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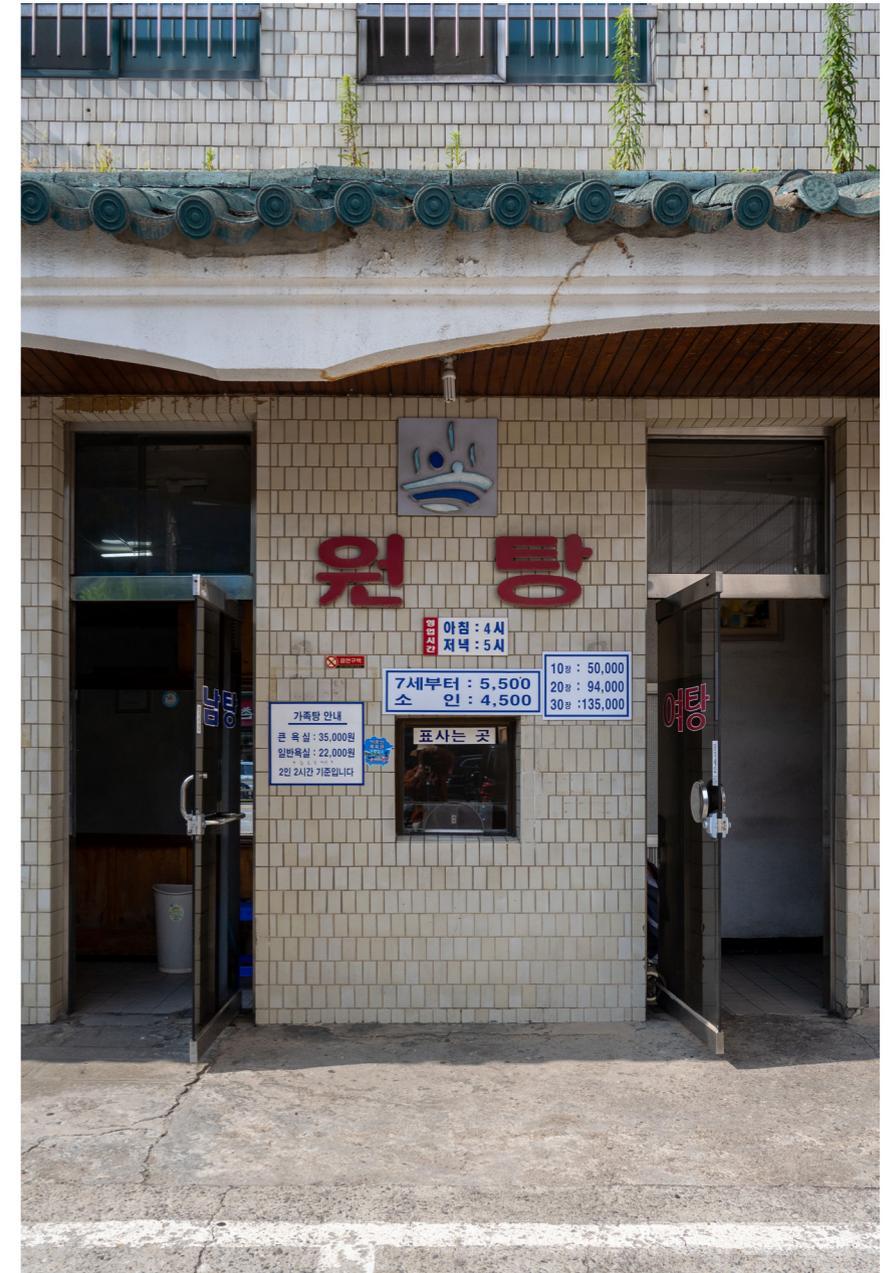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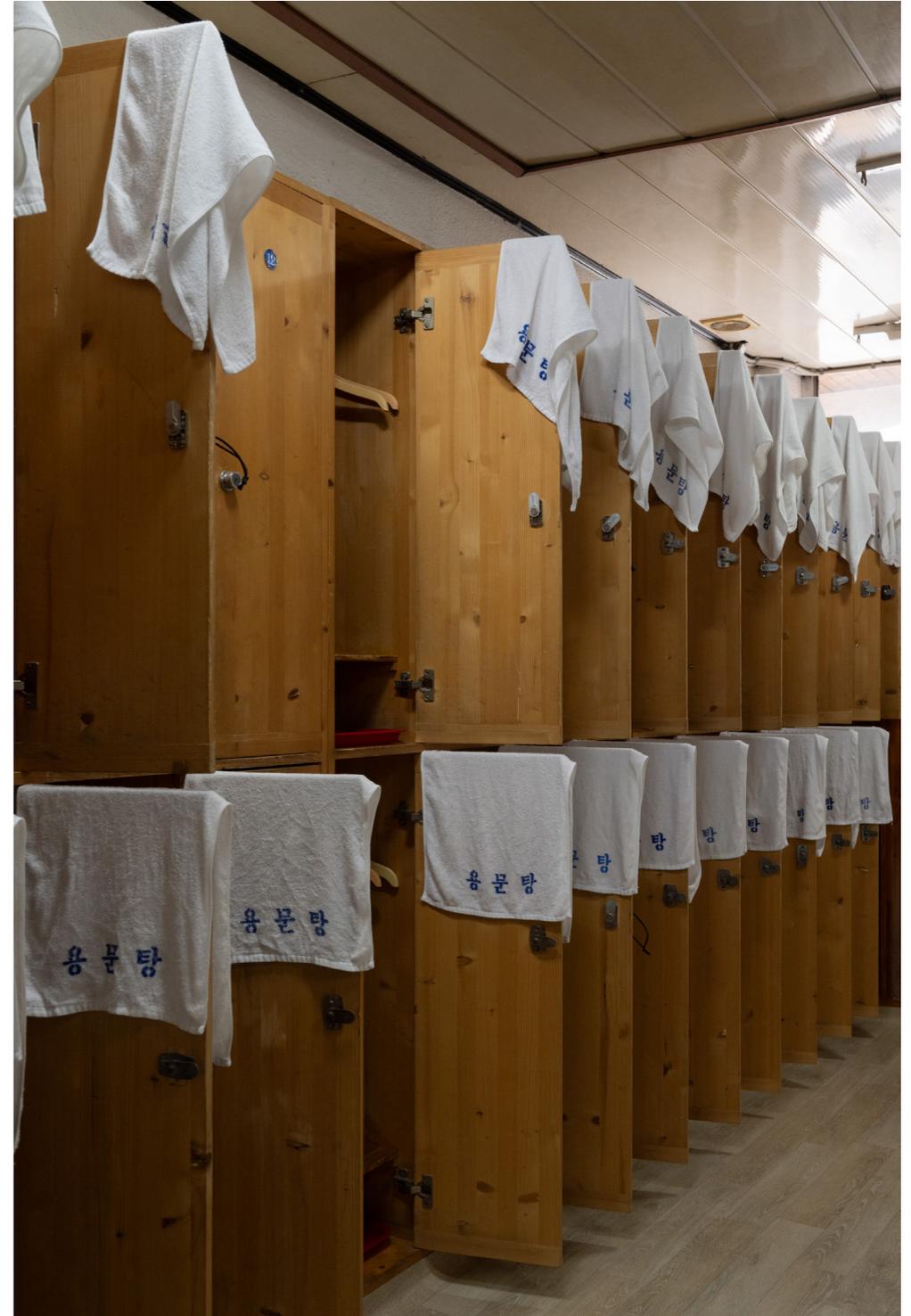














용문온천장 가족방

쌍용문탕 녹음관

중한여행사·환전소 542-7888

換錢所 542-7888 SYC

아산 성심약국 544-2070

아산

아산

아산

아산



사계 스튜디오 548-7893

사진관·수정전문 Photo Studio

꿀벌옷수선

주차장



정수온천탕

정수탕, 정수온천탕, 정수온천사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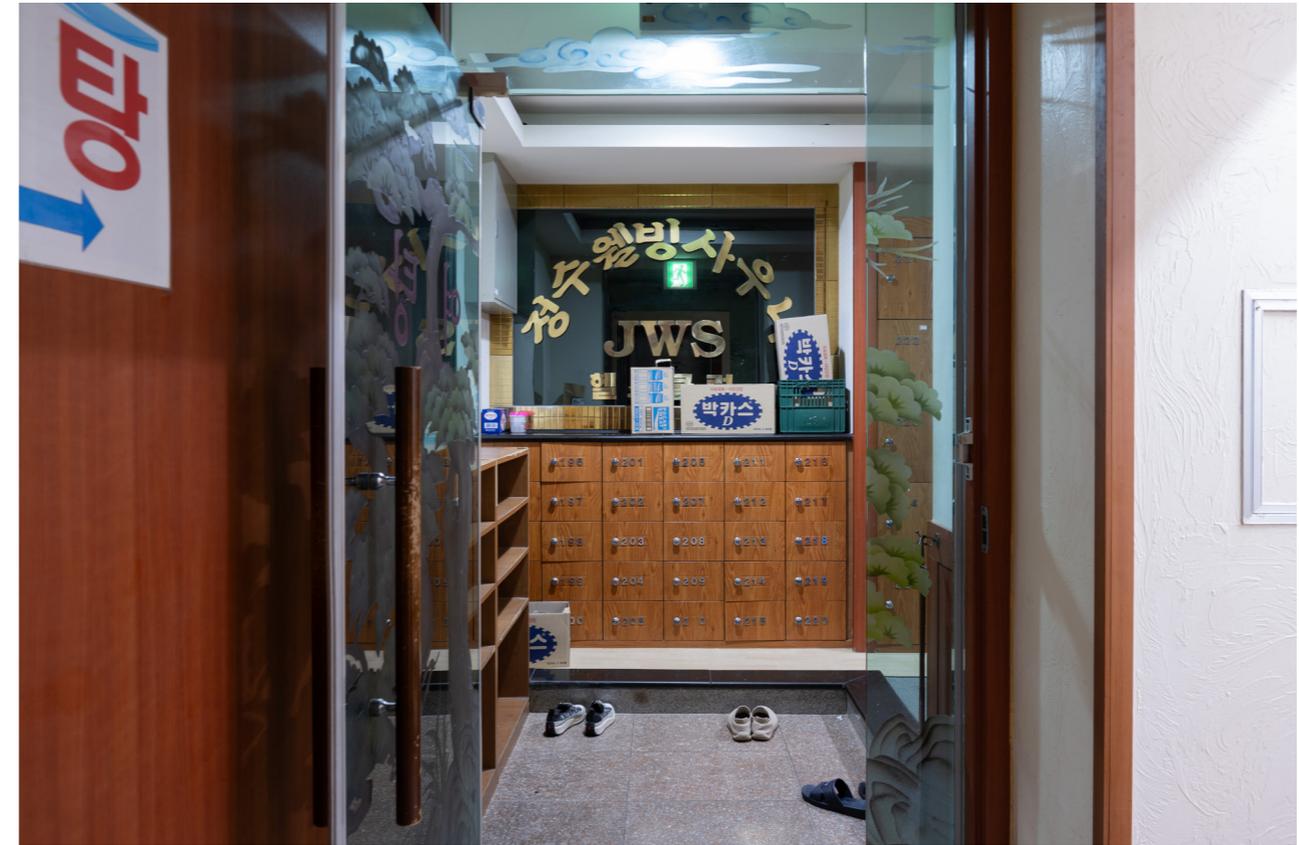
온양온천전통시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대중 목욕탕입니다.

여탕은 지하1층, 남탕은 4층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와서 바로 시장에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물기 닦고 내려 오세요. 제발요.”











두번이상
누르지 마세요
계속 누르면
고장남니다

기계실
편게자와 출입금지

발래금지
여기는 대중탕이오니 발래는
절대 하서는 안됩니다.

오일 사용금지
오일 사용은
몸에
부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귀비열탕

Stacked white plastic stools

현대탕

온천현대탕, 원탕 현대탕

이름은 현대인데, 옛 기억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옛날 목욕탕의 정서에 흠뻑 젖을 수 있는 현대탕이다.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해 주세요.

목은 때는 남기고 행복한 마음만 가져가세요.









온양온천역 노천탕

온양온천역 1번출구 광장 한쪽에 위치한 족욕체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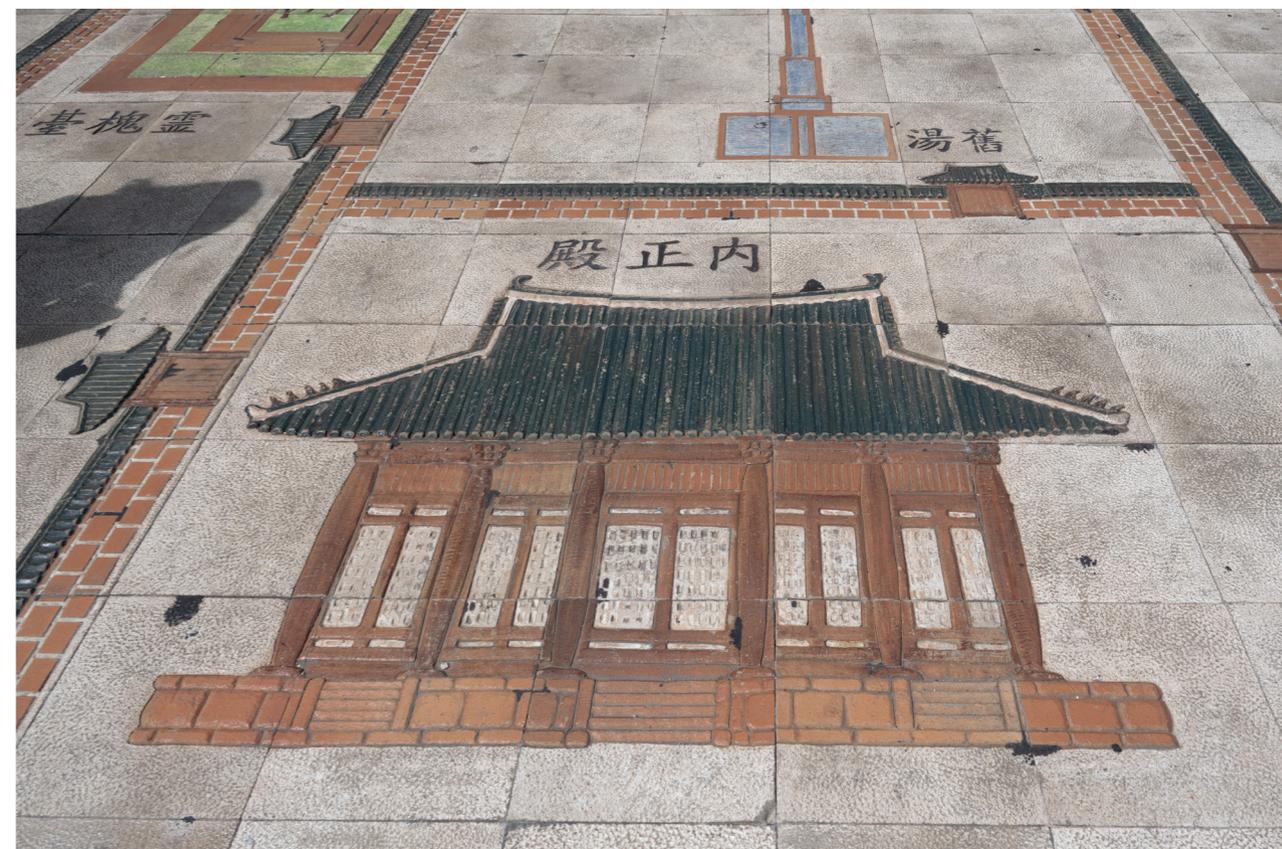
육각지붕 정자와 지붕 없는 노천 족욕장으로 만들어진 시민을 위한 무료 공간입니다.

사계절 온천수로 시민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온양온천역 광장의 노천탕은 2012년 개장한 이래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의 장소이며, 온양온천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온양의 대표 명소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습니다.

“육각지붕은 거북이 등껍질의 육각형 모양이라 ‘거북탕’ 이라 부르고 이어진 노천 족욕탕은 100보 정도의 길이를 하고 있어 ‘백보만세탕’ , 온천수가 뿜어져 나오는 대형 돌 구슬을 ‘동백보주’ , 뜨거운 물이 흐르는 그 주변을 ‘동백섬’ 이라 불러요.”

노천온천 족욕체험장을 관리하는 전병수씨의 흥겨운 안내에 족욕을 즐기는 시민들이 모두 한바탕 웃게 됩니다.









온천 I ♥ Art Valley ASAN 족욕체험장

Asan Korea the first hot spring city
온천도시아산

365연중무휴



온양온천 60도 원탕

어제와 같은데
오늘이 더 나은 곳
욕탕에 물이 채워지면
온천이 문을 열고
옥빛의 온천수가 뿜어내는 연기에
신선놀음이 시작된다.

뜨끈한 온천수
맑은 물이 뿜어내는 열기에
지친 몸이 피로를 풀고
거친 맘이 빗장을 연다.

온천탕 열기 속
사람들의 나른한 움직임
온천수를 적시는 손길에
마음이 녹고
오늘이 익고
행복이 핀다.

온천 할거?
그려. 하~.

간지랍은 등에 온천 물 몇 번 찌었고
때 타올 두 번 지나 가인께
뽀드득 아 살이 되야.

몸뎡이가 가뿐허니
참말루 좋다니께,
당귀봐.
밑까는 일없으니께

온양에서 70년을 사셨다는 할머니

온천 하러 왔어?
간지럽던 몸이 온천 탕에서 목욕하고 나면
애기 살결처럼 부드러워져.
몸도 가뿐하고
손해보는 일 없이 좋으니까
목욕하고 가.

온양온천시장에서 국밥을 먹었다.
옆테이블에서 밥을 드시던 어르신이 말을 건넨다.
그 따스함에
온천 목욕을 하러 가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몸도 마음도 함께 따스해 지는 하루
온양온천이 주는 매력에 스며든다.

우째이리 좋노.
내 신랑 없이는 살아도
온천 없이는 못산테이.

이기 낙인기라.
만날 와도 좋테이.
미끈하고 뜨끈한기
직인다. 직이.

경상도에서 시집온지 40년이 넘었다는 온양사는 할머니

온양온천은 물이
정말 좋아요.

온천을 매일 즐기죠.
신랑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온천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온천에 오는 게 낙이에요.
매일 와도 좋아요.
미끈하고 따뜻한 온천이
정말 좋아요.

혼자 와도 좋고 친구들 하고 같이 와도 좋고
온양에 온천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온양에 사는 게 좋아요.

나는 목욕탕이 좋다. : 7살 훈이의 일기

할머니랑 목욕탕에 갔다.
나는 목욕탕이 좋다.
우리 할머니 주름을 펴 주는 고마운 목욕탕.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까만 얼굴 쪼글한 주름 화난 얼굴인데
나올 때는 뽀얗게 웃고 있는 할머니 얼굴.

우리집이 목욕탕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할머니 맨날 웃을 수 있게.
맨날 뽀얗고 예쁜 얼굴 살 수 있게.

목욕탕 거짓말쟁이들

뜨거운데
시원하다고 하고

때 수건으로 밀면
아픈데
괜찮다고 한다.

목욕탕 물에만 들어가면
젊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

으이구
아이고
으흠
어허
으~ 시원하다.
겁나 시원하.
위메 좋은겨.
엄청 선해유.

온천

예뻐지는 곳
깨끗해 지는 곳
몸도 마음도 맑아지는 곳
가벼워 지는 곳
기분 좋아지는 곳

또 가고 싶은 온천
매일가도 좋은 온양 온천

외국인 방문객을 모시고 왔어요.
온양 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목욕탕을 알까요?
뭐라고 설명해야 하죠?”

괜찮아요.
모두 목욕탕 여러 번 가봤어요.
특히 온양온천은 물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우리보다 우리의 역사를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세종대왕이 온천을 자주 방문하고 온천욕을 즐겼다는 것도 알아요.

모멘트 다음 이야기

온양온천 아카이브 작업을 마무리하며,
모멘트 도시기억 아카이브 작업을 함께하는 작가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온양온천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 사진으로 담아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로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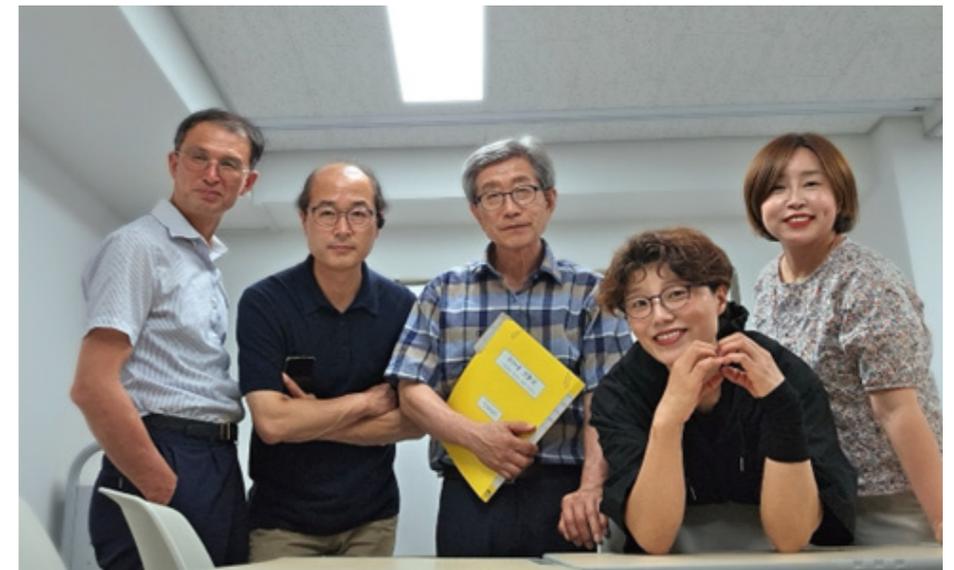
김선홍 : 목욕탕을 주제로 사진을 찍는다는 게 흥미롭고 즐거운 작업이었죠. 온양온천 물이 좋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시설은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게 현실이죠. 타지역의 방문객이 한번 방문한 후 재방문이 늘 수 있도록 온천 시설을 개선하고 주변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도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김인숙 : 온양온천 목욕탕을 사진으로 담아낸다는 게 이렇게 힘든 작업일줄 몰랐어요. 목욕탕 실내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싶었는데 작가의 마음과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마음과 또 고객들의 마음이 각자 다른 입장을 갖고 있으니 쉽지 않았어요. 옛 기억을 담은 더 많은 모습들을 공유해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남아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온양온천 물이 정말 좋더라고요.

박승규 : 어린시절 다녔던 목욕탕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느끼기도 했고 추억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라 힘든 것보다 재미와 즐거움이 더 컸어요. 아산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비하면 지금 온양온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온천 방문객이 온양온천 목욕탕 주변에서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문화시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성준 : 목욕탕을 주제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부자연스럽기도 했지만 온양온천의 옛날 모습을 기억하며 지금의 모습을 기록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온천시설이 현대화되면서 변화하는 도시의 풍경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작업이었어요. 옛 역사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하듯 지금의 시설을 보여주고 더 나은 모습으로 개선하고 발전하는 것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정진 : 아산의 중심지 온양, 그리고 온양을 따뜻한 도시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온천의 기억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함께 할 수 있어 즐거웠어요. 혼자 활동했다면 하지 못했을 여러 기억의 장면이 모멘트 작가들과 함께여서 담아낼 수 있었던 순간이 많아요. 모멘트의 시선이 머물 다음 장소가 기다려집니다.



김선홍, 박승규, 안성준, 정진, 김인숙

도시기억아카이브

온양온천 목욕탕 아카이브

기획

이재복 (도시기억아카이브연합)

사진

김선홍 김인숙 박승규 안성준 정진

발행

모멘트 (MOMENT)

발행인

김인숙

발행일

2024년 11월

MOM
ENT



 (재)아산문화재단

* 도시기억아카이브는 사라져가는 도시 풍경을 기록하기 위해 2020년 시작된 프로젝트로 충북 청주, 충주, 충남 아산을 기반으로 연합하고 있습니다.